



[보도자료] SODAX - Kaia 네트워크 연동. 대한민국 1세대 블록체인 '아이콘'과 '카카오·라인'의 기술적 결합

- 아이콘의 DeFi 특화 후속 모델과 카카오 클레이튼(Klaytn)·라인 핀시아(Finschia)의 통합 생태계가 만납니다.
- Kaia 기반 프로젝트들은 이제 SODAX SDK를 통해 기초 인프라와 로직을 직접 구축·유지할 필요 없이 교차 체인 DeFi 액션(스왑, 대출, 머니 마켓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2026년 3월 4일 -- 아이콘(ICON) 네트워크의 DeFi 특화 후속 모델이자 [크로스 체인 실행 시스템인 SODAX\(Soda Xchange\)](#)가 오늘 자사의 크로스 네트워크 인프라에 [카이아\(Kaia\)](#)를 연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aia는 스테이블코인의 자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온체인 금융을 위해 구축된 EVM 호환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Kaia는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강력한 기반을 둔 카카오와 라인의 생태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번 연동으로 Kaia는 솔라나(Solana), 수이(Sui) 및 다양한 EVM 기반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SODAX 시스템에 연결된 17개 이상의 블루칩 생태계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Kaia의 방향성은 아시아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금융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최고의 스테이블코인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Kaia의 제니 킴(Jenny Kim)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전했습니다. “교차 체인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자산이 **Kaia**와 타 네트워크 간에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와 궤를 같이합니다.”

한국 블록체인의 기념비적 만남

이번 네트워크 연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두 **Web3** 프로젝트가 인프라 차원에서 협력하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2017년 국내 최초의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이콘(ICON)'으로 시작된 **SODAX**는 [2025년 리브랜딩](#)을 거쳐 소닉(Sonic) 블록체인을 허브로 하는 크로스 네트워크 **DeFi** 실행 레이어로 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콘은 창립 당시의 목표였던 상호운용성에 집중하며, 복잡한 크로스 네트워크 실행 과정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대표 메시징 플랫폼인 카카오와 라인의 블록체인 부문 결합으로 설립된 **Kaia**는 2억 5천만 명 이상의 통합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Web3**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SODAX**는 두 프로젝트의 생태계적 자력을 연결함으로써, [Kaia 빌더](#)와 사용자들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통해 더 넓은 글로벌 **DeFi**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질적인 **DeFi** 성과를 위한 인프라

대부분의 솔루션이 단순한 자산 이동에만 집중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목적지 네트워크에 의도한 작업을 완료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이 없을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SODAX**는 유동성이 어디에 있든 이를 조율하여 크로스 네트워크 액션을 실제로 완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SODAX**의 솔버(Solver)는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 및 크로스 네트워크 로직이 통합된 다중 실행 경로를 통해 리스크를 제어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빌더들은 단 한 번의 상호작용만으로 크로스 네트워크 스왑, 머니 마켓 접근, 이자 수익 기회와 같은 복잡한 다단계 액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수익 특화 **DeFi** 플랫폼인 [스푼 파이낸스\(Spoon Finance\)](#)는 이미 이번 연동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SODAX** 생태계 전반의 **USDT** 유동성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은 **SODAX SDK**를 활용함으로써 내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유지 관리할 필요 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ODAX의 민 킴(Min Kim) 대표는 "이번 연동은 한국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단순히 토큰을 옮기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가 원하는 금융 목적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주는 '모던 머니 앱'을 사용하는 듯한 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합니다"라며, "17개 이상의 네트워크에서 유동성과 실행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빌더들이 기초 인프라 고민 없이 서비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연동 세부 사항:



- **인텐트 기반(Intent-based) 실행:** SODAX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는 DeFi 액션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인텐트 기반 모델'을 통해 크로스 네트워크 실행을 조정합니다.
- **통합 유동성:** SODAX는 유동성을 개별 네트워크의 파편화된 풀이 아닌, 시스템 수준의 통합된 재고로 관리하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 **스마트 월렛 추상화:** SODAX는 각 네트워크의 지갑을 개별 관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실행 레이어 차원에서 네트워크 간 계정 상태를 통합 관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ocs.sodax.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DAX 소개

SODAX는 **모던 머니(Modern Money)**를 위한 차세대 인프라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럼, 베이스, 아발란체, 수이 등을 포함한 17개 이상의 네트워크에서 금융 액션을 조율하는 크로스 네트워크 실행 및 유동성 시스템입니다. 독자적인 브리지 릴레이와 LayerZero 및 CCTP 호환성을 갖춘 멀티 브리지 아키텍처, 그리고 솔버 기반 실행 모델을 통해 네트워크 간 스왑, 대출, 차입, 스테이킹 및 결제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sodax.com의 SODAX DeFi 앱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빌더들은 모듈형 SDK](#)를 통해 SODAX를 통합하여 자신의 지갑, DEX, 대출 프로토콜 및 애플리케이션에 크로스 네트워크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sodax.com/news
- SODAX와 함께 빌드하기: sodax.com/partners

Kaia 소개

Kaia는 스테이블코인의 자본화를 이끄는 토대입니다. 아시아 전역의 결제 및 온체인 금융에 최적화된 EVM 호환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단일 고속 네트워크상에서 송금, 결제, 외환(FX), 수익 창출 및 토큰화 자산(RWA) 등을 지원합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합병으로 탄생한 Kaia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전역에서 강력한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카카오와 라인의 생태계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네이티브 USDT 지원, 1초대의 최종성(Finality), 가스비 없는 트랜잭션 등을 통해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결제 환경을 제공하며, 라인(LINE)과 같은 대중적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온체인 금융 및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kaia.io

언론 문의 (SODAX):

John Hooley: press@sodax.com

Twitter/X: [@gosodax](https://twitter.com/gosodax)

프레스 키트: press.sodax.com

언론 문의 (**Kaia**):

이메일: marketing@kaia.io

브랜딩 가이드: <https://docs.kaia.io/misc/brand/>